

나주 혁신도시 푸드플랜 전국으로 확산

농식품부, 내년부터 지자체 5곳 선정 5년간 패키지로 재정 지원
지역농산물 공공기관 안정적 공급...매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

정부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푸드플랜을 전국화한다. 우선 내년에 기초지자체 5곳 내외를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를 지원한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안전·영양·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신선했던 안전 지역농산물을 지역내에서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선도 모델이 나주 혁신도시 푸드플랜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부식 서비스, 명절 선

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하며,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소고령농·여성농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지역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특히 나주시는 시청 내에 이를 전담할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하고,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성했다. 또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같은 노력 결과, 지난 8월 공공기관 4곳에 공급했던 로컬푸드가 두 달만인 10월 10곳으로 2.5배 늘었고, 공급품목도 16개에서 71개로 4.4배 증가했다. 월 매출액은 454만원에서 2829만원으로 6.2배 뛰었으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진열 판매하고 소비자와 함께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며, 공공기관 급식 출하량도 9곳에서 47곳으로 5.2배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의 푸드플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재정사업을 모아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내년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12개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푸드플랜에 참여 중인

지자체(개인·법인)가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도 부여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또는 로컬푸드 종합계획 등을 수립했거나 이따까지 수립을 완료할 지자체로,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4일까지 지자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 간 지원할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주한옥마을, 사계절 문화행사 '풍성'

관광객 1000만시대 겨울철 비수기에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한옥마을이 일 년 내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매년 4~10월에 집중된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로 분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경기전(慶基殿) 광장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화행사와 공연(사진)들을 전주한옥마을을 모든 지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한옥마을에서 여는 문화행사를 전수 조사한 뒤 내년 1월 연간 운영방안을 다시 짜기로 했다.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와 축

제, 공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르고 이들 콘텐츠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운영 시기와 장소가 편중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야외공연이 어려운 한파와 폭염 때는 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를 중심으로 국악·음악방송을 운영하고 겨울에는 여행객들이 따뜻한 실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공예 등 각종 체험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소도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 은행로, 향교길, 오목대, 공영주차장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매주 주말 특색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경찰, 시민안전 위한 치안예측 보고회 개최

여수경찰이 2019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예측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찰서 소통마루에서 김상철 서장과 각과별 과장·계장, 일선 파출소장 등 53명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여수경찰 치안 전망 예측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경찰의 치안예측 보고회는 각 과별 치안 현황과 통계 분석을 통해 2019년 여수지역 치안 방향을 설정 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 대책 마련과 실질적

인 실행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김상철 여수경찰서장의 업무지침인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관리 방안과 사전 선거운동 점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활동, 흑한기 근무지침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번 치안 예측 보고회는 지난 10일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주관하는 '2019 지방정 치안대책 회의'에서 전격 결정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진도 치매안심센터 개소...주민 돌봄사업 본격 나서

진도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고 지역 주민 돌봄 사업에 나섰다. <사진> 치매안심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 인구 증가와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복지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건립됐다.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진도군 보건소 3층 공간 760㎡를 리모델링해 프로그램실·상담 및 정밀 검진실·다목적실을 갖췄다. 지역 내 어르신과 치매 환자·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 등도 마련해 지난 18일 개소

했다. 진도군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 관리·예방 등 군민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에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 9명이 상주한다. 치매 조기 검진, 1대1 상담,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익산시민 80% "익산시정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

익산시민의 80%가 익산시정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20세 이상 유효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익산시정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 11건이다. 조사결과 시정 만족도 긍정 평가가 80.5%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시정 만족도 75.8%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시정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68.8점에 비해 2.2점 증가한 71점을 보였다. 세부항목 중 공무원 친절도는 응답자 중 53.9%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또 올해 10월 개최됐던 전국(장애인) 체전은 시민 54.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관광활성화 정책, 축산농가 약취 개선사업, 친환경정책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긍정답변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유영명 기자 yiy@

순창군, 결혼하면 500만원 장려금 지원

순창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내년 1월부터 결혼 신고를 하면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순창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성인이 처음 결혼할 경우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신

고 1년 후 200만원, 2년 후 200만원을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또 순창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지역기관, 기업체, 군부대에도 별도의 장려금을 줄 방침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문의. 010-6834-7400